

한국인과 카자흐인의 사고방식 비교

카이르케노바 굴나즈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 언어대 3 학년

지도교수: 김영경

Название статьи: Сравнение образа мышления (менталитета) южнокорейцев и казахов

Автор: Каиркенова Г.О., Казах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и мировых языков имени Абылай хана (3 курс), Алматы, Казахстан

Резюме: Данная статья посвящена рассмотрению образа мышления (менталитета) южнокорейцев и казахов. Прежде всего в статье было рассмотрено понятие менталитета. Под менталитетом в словаре лингвистических терминов под редакцией Т.Жеребило определяется – склад мышления, свойственный определенному народу, характеризующийся постоянством, неизменностью, не поддающийся изменению под воздействием идеологического давления. Важнейшее значение в системе ценностей этнического менталитета имеет национальный (этнический) язык. Знание этнического менталитета имеет значение для определения пропорции между эмоциональным и рациональным уровнями сознания в принятии решений, в воспроизводстве оппозиции "мы" – "они", "свои" – "чужие".

В силу географических, исторических, территориальных и других факторов, каждая нация (общность,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имеет определенные особенности, характерные только для нее.

Для примера, невозмутимое спокойствие англичан, или добросердечие русских, или медлительность эстонцев, которые присущи основной массе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этой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Для корейского же общества характерны такие черты как трудолюбие, коллективизм, уважение к старшим и т.д. Казахское общество отличается открытостью, дружелюбием, гостеприимством, незлопамятностью и многим другим.

Ключевые слова: *менталитет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менталитет казахов, Южная Корея, Казахстан, гостеприимство, коллективизм, положение женщин,*
주제어: *사고방식, 한국, 카자흐스탄, 공동체문화, 손님접대, 집단주의, 여성의 지위*

1. 서론

사전에서 사고방식은 "어떤 문제에 대하여 생각하고 궁리하는 방법이나 태도"로 정의한다. 즉, 사고방식은 생각하는 방식, 지성, 지혜이다. 한 나라의 사고방식은 그 민족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다. 그러므로 국가, 민족, 집단에 따라 사고방식이 다르다. 나라마다 역사, 문화, 종교가 다르기 때문이다. 민족의 사고방식 연구는 역사, 문화,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한국어를 배울 때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사고방식을 비교해 보는 일은 한국을 더욱 잘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2. 한국인의 사고방식

단일민족임을 강조하는 한국 사회는 개인보다는 집단을 중요시하는 공동체문화가 자리하고 있다. 공동체문화는 항상 개인의 사적인 면보다는 공적인 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집단적으로 사고하는 성격이 강하다. 특히 한국에서 공동체는 민족이나 국가 혹은 집안이나 지역이라는 이름으로 강조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민족주의나 국가주의, 가족주의나 지역주의의 형태로 표출된다. 특히 일상적인 생활에서 이러한 공동체문화는 혈연주의, 연줄주의, 상하 서열문화, 모임문화 등으로 나타난다.

경제적으로 볼 때, 한국은 농업사회였기 때문에 핏줄로 연결된 친족이 경제적 공동체의 기본이 되어 왔다. 사상적으로 볼 때,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국가적 종교가 되면서 인연을 강조하는 문화가 형성되었고, 조선시대에는 유교가 국가의 통치이념이 되면서 아버지의 핏줄을 중심으로 하는 혈연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요소들이 서로 결합되면서 강한 혈연주의가 형성되었다. 혈연을 강조하는 문화는 부모를 섬기고 자식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족공동체를 만드는 중요한 사회적 원리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혈연주의는 한국의 대기업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듯이, 일가친척을 중심으로 경영하는 족벌경영 혹은 족벌체제를 만드는 폐단을 낳기도 한다. 한국 사회의 많은 부분에서 아직도 혈연이 중시되고 있지만 혈연주의에서 벗어나려는 노력 또한 여러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

한국의 공동체문화는 자신의 고향에 대한 강한 애착심을 낳았고 이는 특정 지역에 대한 강한 공동체의식으로 이어지면서 지역주의로 표출되었다. 특히 박정희 정권이 군부독재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특정 지역 출신

이 증용되면서 지역주의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지역주의는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지를 얻기 위해 더욱 강조되었고, 이는 현대 한국 정치가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오늘날 서울을 중심으로 생활화는 수도권 인구가 전국 인구의 40% 정도에 달하면서 지역주의는 서서히 세력을 잃어가고 있는 추세이지만,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 지역주의는 중요한 문화현상으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공동체문화가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개인의 개성이나 능력보다는 같은 핏줄과 같은 지역 또는 같은 학교 출신이라는 점이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는 연줄문화가 자리잡게 되었다. 이러한 연줄문화는 사회의 많은 부분에서 부정부패를 낳게 되었고, 1980년대까지 한국은 부정부패가 만연한 국가라는 이미지가 강했다. 그러나 1990년대 접어들면서 사회적으로 합리주의가 강조되고 국제표준에 맞추어 정부나 기업이 새로운 조직체계를 갖추면서 연줄주의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한국의 공동체문화가 군대문화와 나이가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 직위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등으로 상하를 분명하게 나누는 상하서열문화가 자리잡게 되었다. 명령과 복종이 중요한 조직 원리인 군대문화와 상하서열을 강조한 유교문화가 결합하여 이러한 문화를 낳게 되었다. 오늘날에도 한국인들은 수평적 관계보다는 수직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공동체문화가 오늘날 가장 일상적으로 표출된 형태로 모임문화를 꼽을 수 있다. 한국인은 누구나 많은 모임에 참여한다. 한국인이 주로 활동하는 모임의 대표적인 예로는, 같은 고향 출신의 모임인 동창회 혹은 동문회,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인 동호회, 같은 종교에서 활동하는 신앙모임 등이 있다. 이처럼 한국인들은 모임 만들기를 즐기기 때문에 사소한 만남을 모임으로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같은 취미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임도 점차 늘고 있다.

이처럼 한국사회는 개인보다 집단이나 전체를 강조하는 성향이 강하다. 물론 최근에 접어들어 젊은 세대들이 개인주의적 성향을 드러내면서 공동체문화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인은 공동체문화를 가치있는 문화로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 문화의 중요한 특성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여 "우리 나라, 우리 학교, 우리 친구, 우리 딸" 등으로 표현한다. "우리"는 하나의 단어에 불과하지만, 단일민족, 단일언어로부터 비롯된 한국인의 공동체 의식이 최대한 발휘된 말이다.

"우리"로 정리되는 공동체 의식 역시 장점과 단점이 있다. 장점은 정이 많고, 집단 의식이 강해 경제성장이나 2002년 월드컵 때처럼 하나로 뭉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고, 단점은 개성과 주체성이 보장받기 힘들다는 점이다.

3. 카자흐인의 사고방식

과거 카자흐스탄은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카자흐인들은 불임성, 정의, 환대 등 유목문화의 특성을 잘 드러낸다. 카자흐스탄을 연구한 대부분의 학자와 여행가들이 카자흐인의 환대와 친절에 대해 언급한다. 19세기 유명한 민속학자 디바예프는 "1876년에 투르키스탄을 방문하여 유목민들과 만나게 되었다. 그들은 기품있고 신뢰감있는 카자흐-키르기스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부족끼리 싸울 때에도 환대를 잊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카자흐인들은 전통에 따라 여행자가 찾아 오면 친절할 모습으로 대하고, 유르타(카자흐 전통가옥)에 초대하여 아무 것도 묻지 않고 음식을 대접했다. 손님이 음식을 먹은 후에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물어볼 수 있었다. 이러한 대화도 가장만 할 수 있었다. 카자흐 민족의 속담에 "손님에게 대접하기 전에 아무 것도 묻지 말라.", "손님에게 고기를 삶아 대접하지 못하는 것은 집주인의 수치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카자흐인의 환대를 엿볼 수 있는 일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특히 카자흐인들은 옛부터 다른 민족들과 잘 융화한다. 현재 카자흐스탄에 100개 이상의 민족이 살고 있다. 대조국전쟁(독소전쟁) 때 많은 사람들이 카자흐스탄으로 이동하여 카자흐인들의 환대를 받으며 새로운 고향에 정착했다. 카자흐인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민족에 상관없이 아이들을 양자로 삼아 친자식처럼 대했다.

남성과 여성의 지위도 그 사회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중앙아시아는 이슬람문화권이라는 점에서 여성의 지위가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된다. 중앙아시아에서 여성은 사회와 가정에서 이중적 지위를 지닌다.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남녀의 구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성도 능력만 있다면 높은 지위를 오르는 것이 어렵지 않다. 종합병원 원장, 대학교 총장, 국회의원, 고위 공무원인 여성을 한국에서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가정생활에서는 여성의 지위가 종속적인 경우가 많다. 일반 사무직에 종사하는 여성은 원치 않더라도 남편의 요청에 의해 결혼과 함께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집에서 시부모를 모시고 아이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중앙아시아의 TV 드라마는 남편이 바람을 피거나 무능력하고, 아내가 시집살이를 하면서 시어머니에게 구박받는 이야기가 많다. 많은 여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공감을 하면서 TV 드라마를 본다. 여성들은 결혼을 하게 되면 누리던 생활을 포기해야 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독신으로 남는 것을 더욱 두려워하여 결혼을 서두르게 된다. 아마도 집단생활에 익숙한 중앙아시아, 특히 우즈베키스탄 및 카자흐스탄의 농촌 여성들이 소속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해 큰 두려움을

갖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중앙아시아에서는 여성이 20 세에 이르면 이미 결혼 적령기에 이르고, 25 세를 넘기면 사회적 압력으로 인하여 결혼을 하지 않고 남아있기가 매우 어렵다.

이러한 이중적인 여성의 지위는 소비에트 체제와 중앙아시아 전통이 결합된 결과이다. 소비에트 체제에서 여성의 사회활동이 보장되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법적으로 향상되었다. 남녀 구별 없는 초등교육의 결과로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중앙아시아에서도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매우 활발했다. 그러나 전통적인 마을 공동체는 소비에트 체제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서 마을 공동체 내부에서의 여성의 지위는 과거와 변함없이 유지될 수밖에 없었다.

전통적으로 카자흐 여성들은 다른 민족에 비해 자유로운 편이었다. 예를 들면, 얼굴을 덮는 외출용 장옷 "과란자"를 걸치는 것도 필수가 아니었다. 여성들은 거리낌없이 여러 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결혼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어서, 젊은 시절을 즐겁게 보낼 수 있었다. 여자와 남자들은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불렀다.

집단주의 사회란 집단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되는 사회로, 개인주의 사회와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소비에트 체제에서 독립한 후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의 신생국가들이 그렇듯이 국가 발전을 명목으로 집단주의 이데올로기를 내세우고 있다.

전통적으로 유목민인 카자흐인들은 이동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 유르타를 중심으로 소규모 촌락인 "아울"(aul)을 구성하여 살아왔다. 따라서 같은 '아울' 내에서 이들 역시 공동체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개인에게 발생하는 일은 비밀을 유지할 수 없으며, 타인의 일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 중앙아시아 사람들의 타인에 대한 관심은 외국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 않는다.

카자흐스탄에 처음 도착하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던지는 끊임없는 질문에 아무리 남의 일에 관심이 많다고 평가받는 한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당황하기 마련이다. 택시를 타더라도 어디에서 무슨 목적으로 왔는지를 시작으로 해서 나이와 이름, 가족관계, 직업, 보수 등을 마치 심문이라도 하듯 상세하게 묻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묻지 않아도 자신에 대해서 서슴없이 이야기하고, 또한 예전에 택시를 탔던 사람 중에 인상적이었던 사람의 신상명세를 끊임없이 이야기한다. 만약 귀찮다고 이러한 질문에 성의없이 대답하면 다음 만남에서 당황하는 일이 발생할지도 모른다. 카자흐인들은 평소에 상대방의 대답에 매우 주의를 기울이며 대부분의 대답을 기억하여 다음의 예정 없는 만남에 이 정보를 활용한다.

카자흐인들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사회가 용납하는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자신들의 집단주의가 현대사회의 인간 소외라는 병폐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마을 공동체에서 자라난 자식들은 그곳에서 쫓겨날 각오를 하지 않는 이상 부모 공경

에 소홀히 할 수 없고, 만약 자식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마을 공동체에 속한 이상은 마을 공동체에서 그들의 노후를 책임질 것이기 때문이다. 카자흐인에게 집단주의는 이상적인 사회유지 방법인 것이다.

4. 결론

아시아 대륙에 위치한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문화와 사고방식에서도 유사한 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윗사람에 대한 존경을 꼽을 수 있다. 어려서부터 윗사람에 대한 존중을 배워서 높임말이 발달했다. 그리고 한국인들의 본관처럼 카자흐스탄에도 3 주스가 있다. 본관이 같으면 결혼 할 수 없듯이 같은 주스 간에도 여러 제약이 있다.

또한 한국어와 카자흐어에는 호칭이 특히 발달했다. 과거에는 친족들끼리 마을을 이루어 사는 경우가 많아서 만나는 사람 대부분이 친척이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호칭은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삼촌, 언니, 동생" 등이었다. 지금도 친족관계가 아닌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그런 호칭을 사용한다.

두 나라의 사고방식이 다르지만 서로의 긍정적인 면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카자흐인은 공동체의 정신을 배울 필요가 있고, 한국인은 지나친 민족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참고문헌

1. 이선이, <외국인을 위한 한국 현대 문화>, 한국문화사, 2007, p.15.
2. 최기호, 김미형, 임소영, <언어와 사회>, 한국문화사, 2004, p.63.
3. Kim SeonJung, Kim Jaewook, Hwang InKyuo, Пак Нелли, Цой Ми Ок.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для казахстанцев. Рабочая тетрадь – продвинутый уровень5» Сеул, 2012. – 34 с.
4. <http://www.egpu.ru/lib/elib/Data/Content/128275704792360049/Default.aspx>
5. <http://geo.1september.ru/article.php?ID=200300405>
6. http://www.rusnauka.com/2_KAND_2013/Psihologia/7_125325.doc.htm
7. <https://zonakz.net/blogs/user/kapitan/11927.html>
8. http://lingvistics_dictionary.academic.ru/1983
9. <http://expat.su/south-korea/category/mentalitet/>
10. <http://xreferat.ru/104/2191-1-mentalitet-russkogo-cheloveka.html>
11. http://knowledge.allbest.ru/languages/2c0b65635b2bc68b5d53b88521206d36_0.html
12. http://kazakhstyle.ucoz.kz/publ/kazakhi_i_korejcy_kha_khan_39_s_koryo/1-1-0-9
13. http://kin.naver.com/open100/detail.nhn?d1id=6&dirId=613&docId=544550&qb=7Lm07J6R7J24IOyCrOqzoOuwqevLnQ==&enc=utf8§ion=kin&rank=2&search_sort=0&spq=0
14. <http://camonitor.com/14500-osobennosti-kazahskogo-nacionalnogo-mentaliteta.html>